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vol.4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육명심

- _ 구술 녹취문
- _ 구술자 연보
- _ 주요 참고 자료 목록
- _ 구술자 원문 자료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한국사진사 자료들의 수집, 정리, 보존, 연구를 목적으로
2009년 1월 설립되었습니다.

발행 가현문화재단
주소 138-724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45 한미타워 19층
전화 02-410-9123
팩스 02-418-1316
웹사이트 <http://photomuseum.or.kr>
이메일 research@photomuseum.or.kr

발행인 송영숙
기획 한국사진문화연구소
편집인 최봉림, 이경민, 황사라, 유지의
녹취초교 정은정
디자인 한스그래픽
출력인쇄 그래픽코리아
발행일 2011년 10월

© 2011 Korea Institute of Photography and Culture
All rights reserved.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한국사진문화연구소와 저자에게 있으며,
한국사진문화연구소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ermission from Korean Institute of Photography and Culture.

ISSN 2093-2731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한국 근현대 사진사와 관련된 사진 및 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기증된 자료는 사진문헌의 부재와 소실로 척박한 환경에 처해있는 한국사진사 연구에 귀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을 보조받아 발간되었습니다.



목 차

5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제4호를 발간하며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육명심

7 구술면담 개요 및 일정

8 일러두기

— 구술 녹취문

11 제 1 차 구술면담 : 육명심의 삶

63 제 2 차 구술면담 : 교육자로서의 육명심

113 제 3 차 구술면담 : 작가로서의 활동

159 제 4 차 구술면담 : 육명심과 한국사진사

— 관련 자료 소개

200 1. 구술자 연보

203 2. 주요 참고 자료 목록

210 3. 구술자 원문 자료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제4호를 발간하며

최 봉 립 /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소장

사진작가, 교육자, 평론가, 한국사진사학자로서 한국 사진계를 긴 세월 동안 품어왔던 육명심 선생과의 인터뷰는 오랜 준비 기간을 필요로 했다. 그가 남긴 수많은 글과 적지 않은 저서, 그리고 여러 사진집을 인터뷰를 위해 수집하고 검토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진의 전 분야에 걸친 선생의 오랜 활동은 수많은 질문 항목을 작성케 했고, 그의 생생한 기억은 애초에 계획했던 세 번의 인터뷰를 부족하게 만들었다. 해서 한국사진사 관련 인터뷰가 한 차례 더 추가되었다.

선생은 유년 시절의 추억에서부터 그의 문학 청년 시기, 그리고 동양사상에 심취하게 된 계기를 논리 정연하게 구술하셨고, 1960년대 사진 입문 당시의 한국 사진계의 현황을 그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평가하셨다. 무엇보다도 그는 1970년대 초에 시작한 대학 교직 재임 동안의 그의 독특한 교육방식과 교육관에 대해서 확신에 찬 어조를 시종 잃지 않으셨고, 그의 사진 교육사적 업적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피력하셨다. 선생은 자신의 사진작업의 변모와 진화를 연대기적으로 해설하시면서 자신의 작업이 가지는 독창성과 민족주의적 성격을 강조하셨다. 1978년, 최인진 선생과 공저로 한국 현대 사진사의 개론서를 최초로 집필하신 선생은 우리 사진계의 주요 사건과 현상들에 대해서도 신념에 찬 해설을 해주셨다.

선생과의 긴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그의 지난했던 개인사와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한국 사진계의 허와 실을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었고, 열악한 경제적 대가와 빈곤한 문화적 환경,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이해관계와 인간적 갈등 속에서도 사진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한국 사진계의 성장을 주도한 인물들의 얘기를 접할 수 있었다. 자료집 발간의 자리를 빌어, 피곤함을 마다하지 않으신 선생의 긴 구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1년 10월